

#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탐색 연구

## : D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 중심으로

오 윤 자(경희대 교수) · 강 민 경(경희대 석사과정) · 김 은 정(경희대 박사과정)

가족역량강화사업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별도예산에 의한 중앙정부(여성가족부) 추진 사업으로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·경제적 자립역량 강화, 충격적 사건 경험가족의 피해 최소화, 통합적 지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. 가족역량강화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근거해 볼 때, 신사회 위협에 대한 해법기제인 동시에 선제적인 성장전략이며 돌봄틈새의 특성에 초점을 둔 서비스로서 가족내 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다. 서울 거주 취약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3개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성, 취약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, 위기가족지원 서비스, 조손가족통합지원 서비스로 구분되고 있다.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탐색으로 첫째, 2012년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추진방법을 알아보고 둘째, 내용별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.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역량강화지원을 위한 수요자의 특성, 통합지원, 가족기능 강화, 위기극복역량 증진 등의 초기적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이나 제도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. 본 연구방법 및 절차는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D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개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조사하였다. 자료분석은 첫째, 사업 실천을 위한 추진방법을 살펴보고 둘째, 이용현황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유형별 프로그램 수·참여인원의 빈도 산출, 셋째, 현장실무자 중심의 사례관리 및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내용은 2012년 사업결과보고서에 기초하였다. 결과를 살펴보면, 첫째, 추진방법에 있어서 공통방법으로 교육문화프로그램·자조모임이 사용되었고, 가족형태별로는 ① 취약한부모가족은 사례관리방법을 기반으로 전화, 대면, 가정방문의 접촉방법을 사용, 자립기반 조성 및 강화를 위하여 취·창업, 자격증 또는 상위학위 취득, 취업교육이 있었다. ② 위기가족은 긴급위기지원방법으로 긴급심리지원·가족돌봄·외상치료를, 가족기능회복지원방법으로 가족상담및치료·가족돌봄을, 가족역량증진지원방법이 있었다. ③ 조손가족은 통합지원방법으로 손자녀학습정서지원·생활가사지원·주거환경개선지원을 하였다. 둘째, 이용현황은 ① 취약한부모가족은 149가정 621건 ② 위기가족은 417가정의 430명으로 외상치료비 지원 3가정 3명, 심리정서지원 414가정 427명 ③ 조손가족은 129가정 414명으로 학습정서지원 116가정 146명, 생활가사지원 25가정 85명, 주거환경개선지원 5가정 14명이었다. 또한, 교육문화프로그램은 56가정 100명, 자조모임은 29가정 77명, 자원개발 및 연계는 56가정 105명, 협약기관은 25개로 나타났다. 셋째, 주요 성과로는 전문성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위기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일부 취약계층의 특수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가족서비스의 대상이 일반화되는데 기여하였고 일회적·단기적 개입에서 중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교육·문화·자원연계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및 대상자가족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. 시사점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가정위기 극복을 위한 접근 수월성 및 지속적·실질적인 가족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